

팔팔하게
다같이
잘 사는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公明正大

8

무소속

김구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산청군의회의원선거 (산청군라선거구)

1. 인적사항

기호	소속정당명	후보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직업	학력	경력
8	무소속	김구	남	1976.12.25. (49세)	현대건축 대표	대전대학 (현 아주자동차대학교) 자동차기술과 1학년 제적(1996.3.~2001.9.)	(현)지리산민예술제 추진위원장 (현)작은학교살리기 운동본부장

2. 재산상황 및 병역사항

재산상황(천원)					병역사항		
계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후보자	배우자	18세 이상 직계비속
0	0	-	고지거부	-	육군 병장 (만기전역)	-	-

3. 세금납부·체납실적 및 전과기록

최근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천원)				후보자 전과기록
구분	납세액	체납내역		
		체납액 누계 (완납일자)	현 체납액	
계	0	0	0	-절도 벌금 100만원(2019.06.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300만원(2023.12.2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100만원(2024.02.14.)
후보자	0	0	0	
배우자	-	-	-	
직계존속	신고거부			
직계비속	-	-	-	

4. 소명서

저에게는 과거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잘못된 판단을 하였고, 음주 후 짧은 거리의 차량 이동과 무면허 운전으로 법을 위반한 사실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정이 있었더라도 법을 어긴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법과 원칙의 무게를 뼈아프게 깨달았습니다.

김주 8대 공약

작은학교가 살아야, 마을이 삽니다.

학교도 지키고, 치안도 지키겠습니다.

신등·신안·생비량의 작은학교가 사라지면 마을의 미래도 함께 사라 집니다.

김주는 작은학교 살리기를 교육 문제에만 머무르지 않고, 주거·돌봄·통학·일자리·주민안전·외국인근로자 상생까지 함께 해결하는 생활정치 공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 작은학교 살리기

지원 조례 제정

신등·신안·생비량 작은학교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작은학교살리기 지원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단계초·도산초·생비량초와 학부모주민행정·교육지원청이 함께하는 3면 작은학교 협의체를 설치하겠습니다.

2. 전입가정 주거

패키지 추진

아이를 보내고 싶어도 살 집이 없으면 전입이 어렵습니다.

빈집을 고쳐 전입가정이 살수 있는 임대형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학교 상담·주거안내·일자리 연결까지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3. 방과후·돌봄·

통학 안전망 구축

작은학교 학부모의 가장 큰 걱정인 통학과 돌봄입니다.

신등·신안·생비량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 방과후, 방학돌봄, 통학 안전지도, 체험학습 차량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4. 단계초·도산초·생비량초 마을 캠퍼스 조성

작은학교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겠습니다. 역사·생태농업·로컬푸드·문화예술 교육을 마을과 연결해 3면 공동 마을 캠퍼스를 만들겠습니다.

김주의 약속

작은학교는 살리고, 빈집은 채우고, 통학은 안전하게, 치안은 든든하게 만들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는 배척이 아니라 관리와 상생으로, 주민불안은 생활안전망으로 해결하겠습니다.

5. 전입 학부모 일자리·소득 연결

전입가정이 정착하려면 부모의 생계도 중요합니다. 농번기 일자리, 로컬푸드 가공, 돌봄보조, 마을카페, 체험관광, 온라인판매 교육 등을 연결하겠습니다.

6. 외국인근로자 숙소

주민안전 사전협의제 도입

외국인근로자는 농촌에 꼭 필요한 일손입니다.

다만 숙소 집중으로 인한 주민불안을 줄이기 위해 주민설명, 관리책임자 지정·쓰레기·소음·교통·주차 관리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7. 학교·숙소 주변

생활 안전망 확충

파출소 기능이 줄어든 상황에서 치안공백을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학교숙소, 마을회관, 버스정류장 주변에 CCTV, 보안등, 비상벨, 안전반사경 통학로 안전포시를 우선 확충하겠습니다.

8. 주민 민원 원스톱

대응창구 설치

소음, 쓰레기, 무단주차, 야간불안, 언어소통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겠습니다. 면사무소 접수, 현장확인, 숙소관리자통보, 조치결과 안내까지 이어지는 주민 민원 원스톱 대응창구를 만들겠습니다.

작은학교가 살아야 마을이 삽니다.

김구는 신등·신안·생비량의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해 주거, 돌봄, 통학, 일자리, 교육과정을 하나로 묶은 작은학교-마을 동행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는 농촌에 꼭 필요한 일손입니다.

김구는 외국인근로자를 배척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숙소 관리책임제, 주민설명회, 생활질서교육, 치안협의체, CCTV·보안등·비상벨 확충으로주민과 외국인근로자가 함께 안전한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김구는 작은학교도 지키고, 치안도 지키겠습니다.

8 대 공약

1. 작은학교 살리기 지원 조례 제정
2. 전입가정 빈집 리모델링 주거 패키지 추진
3. 3면 공동 방과후·돌봄·통학 안전망 구축
4. 단계초·도산초·생비량초 마을캠퍼스 조성
5. 전입 학부모 일자리·소득 연결 사업 추진
6. 외국인근로자 숙소 주민안전 사전협의제 도입
7. 학교·숙소 주변 CCTV·보안등·비상벨 확충
8. 주민 민원 원스톱 대응창구 설치

公明正大

8

김구

무소속